

신호위반사고 낸 구급차...1심 “긴급상황 아니면 유죄”

“구급차, 신호정지 의무 없어” 주장 1심 “환자 응급상황 아니었다” 유죄

신호를 위반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급차 운전기사가 ‘구급차는 신호정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에 규정된 ‘긴급한 경우·용도’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차상)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기사 A(34)씨에게 지난 16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발지

로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다리뼈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구급차라서 신호정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법에 정해진 ‘긴급한 경우·용도’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고 당시 A씨가 운전하던 구급차는 긴급한 용도로 쓰이지 않았고, 상황이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다. 강 부장판사는 “긴급한 용도”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경우 또는 사망자 등의 이송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가 환자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이었고 환자가 응급상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송 목적이 요양원이었던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신호를 준수하더라도 지체되는

시간은 최대 수분 정도에 불과했다”며 “당시 피고인의 상황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직진 차로를 주의 깊게 살펴봤더라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이슬기자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근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입시곡 유출’ 연대 음대 교수, 1심 징역형 집유

과외해주던 제자에게 피아노 입시 지정곡 유출 혐의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연세대 교수 한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부장판사는 한씨로부터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한씨와 A씨 사이에서 과외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음악학원장 B씨와 사립대 음대 학생 C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학교가 일정 수준을 갖춘 학생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음대 입시 실기시험 전반에 관한 공정성이 크게 의심받게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금전적 대가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함께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불법과외 교습을 해주던 자신의 고등학생 제자 A씨에게 2022학년도 정시 입시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연세대는 지난 2021년 9월 입학 요강을 통해 음대 피아노와 예심 실기곡으로 프란츠 리스트(Franz Liszt)의 파가니니 연습곡 등 3곡을 범위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후 음대 입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연세대의 입학 요강 공개에 앞서 해당 곡들이 실기시험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그를 기소했다. 뉴스

왜 쳐다봐...카자흐인 폭행 전치6주, 몽골인 둘 구속영장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무차별 폭행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을 무차별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외국인들이 구속 기소에 놓였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행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공동상해)로 몽골 출신 불법체류자 A(23)씨와 같은 국적 단기 합법 체류자

B(2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광산구 월곡동에서 카자흐스탄 출신 C(29)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

식도 없는 C씨가 자신들을 바라보자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19일 북구 신안동의 원룸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형택기자

흥기로 아내 찌른 상습 가정폭력 2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내를 흥기로 찌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자택에서 다투다 이웃집으로 몸을 피한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흥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아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B씨와 잦은 불화로 최근까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B씨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 전력만 2차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로 B씨에 지급했던 스마트워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인지, A씨를 붙잡았다. 이슬비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